

신용회복으로 노숙인에게 새 삶을 열어주다



김동혁 대한성공회살림터 사무국장은 2008년부터 노숙인의 사회복귀와 자립을 지원해왔다.

김동혁 대한성공회살림터(이하 살림터) 사무국장은 우리 사회의 위험신호를 가장 빠르게 체감한다. 일터에서 할 일이 많아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종종 방문하는 영등포역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때면 그는 위기가 오고 있음을 느낀다. 그의 업무가 노숙인의 자립과 자활을 돕는 일이기 때문이다.

“노숙인은 우리 사회의 변화로 시스템이 무너질 때 피해를 입거나 적응하지 못해 잠시 밖으로 밀려난 분들입니다. 노숙인이 많아지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누구든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노숙인들이 다시 사회 시스템 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김동혁 사무국장은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가장 열악한 노숙인 복지분야에서 일하며 특히 노숙인의 신용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 2008년부터 15년간 총 307건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접수했고 이중 개인회생 13건, 파산면책 126건, 개인워크아웃 37건, 건강보험 결손 106건 등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서울노숙인시설협회 교육위원으로 신용회복, 보수교육, 인권교육 등을 통해 노숙인의 사회복귀와 자립을 지원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제34회 아산상 복지실천상을 수상했다.

노숙인 자활에 꼭 필요한 신용회복

“노숙인 복지의 3대 사업으로 주거, 일자리, 의료があります. 99.9%의 노숙인 복지사업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하지만 노숙인이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위기로



가족단위 노숙인 생활시설인 살림터에 대해 설명하는 김동혁 씨.

인한 신용불량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신용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노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회전문 현상’을 막으려면 신용회복이 꼭 필요합니다.”


사회복지학과 함께 법학을 전공한 그는 법률적 지식을 활용해 노숙인의 신용회복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한 번 신용을 잃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노숙인이 신용을 회복하는 길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었다. 김동혁 사무국장은 ‘신용회복을 돕는 기관이 많이 있지만, 노숙인에게는 너무 문턱이 높기 때문에 밀착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12년간 신용불량 상태인 노숙인이 있었는데, 다른 기관에서도 신용회복을 시도했지만 워낙 오래된 채무인데다가 서류며 비용이며 챙겨야 할 것이 많아서 해결하지 못했어요. 본인도 기억 못할 만큼 오래된 빚들을 일일이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인내심이 필요하다보니 노숙인이 화내면서 가버리신 적도 있어요. 사비를 들여 비용을 내고, 어떻게든 설득하면서 신용회복 신청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신용을 회복해서 취업도 하신 성공 케이스죠.”

그에게 노숙인 신용회복 지원은 몇 장의 서류로 해결되는 보통의 법적 행정절차가 아니다. 노숙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문제에 부딪쳐 해결해나가며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치열한 현장이다.

해체 위기 가족 보호의 최일선에 서다

김동혁 사무국장은 노숙인 신용회복의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그의 일터인 살림터에서는 살림꾼으로 통한다. 살림터는 국내 유일의 가족단위 노숙인 생활시설로 많게는 35명의 노숙인과 가족들이 생활한다. 아이들은 아동시설로, 엄마는 여성시설로 뿔뿔이 흩어져 해체 위기에 처한 위기가정들을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전기나 배수, 각종 설비 등 손이 필요한 곳이 적지 않다. 김동혁 사무국장은 사회복지사로서 입소자들의 생활과 자립을 돕는 한편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시설을 도맡아 관리한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은행 지점장 출신도 있고, 명문대 출신도 있었어요. 누구나 한 순간에 노숙인이 되고 가정이 해체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우리 사회에 살림터 같은 시설이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에 처한 이들이 의지하고 다시 새 삶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요.” 김동혁 사무국장은 ‘살림터는 위기가정을 위한 최전방시설’이라며 ‘끝까지 맡은 소임을 다하며 아산상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글 편집부



김동혁 씨(왼쪽)가 노숙인을 위한 신용회복 강의를 하고 있다.